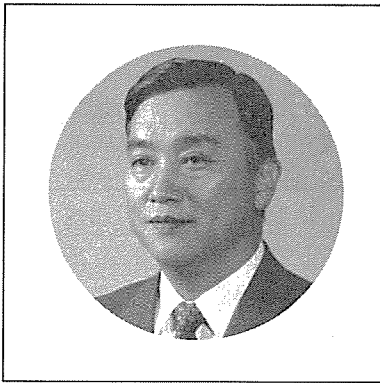


# “科學技術文化의 暢達에 앞장서야”

-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해 당면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鄭 根 謨 科技處長官

존경하는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회장님.  
科學技術界 원로선배님과 科學技術人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희망과 결실의 年代가 될 1990년대의 첫해에  
맞는 오늘 제23회 科學의 날에, 科學技術의 요람  
이자 《先進韓國의 꿈》이 담긴 이곳 대덕연구단지  
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이날을 기념하고, 《創造와  
革新》을 향한 우리 科學技術界의 의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먼저 그동안 탁월한 研究  
成果와 훌륭한 업적을 쌓아 大韓民國科學技術賞  
을 수상하시는 분들과 科學技術振興에 공로를  
세워 포상을 받으시는 유공자 여러분들에게 아낌  
없는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각에도 研究室과 강단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의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知識의  
探究와 개발에 헌신하고 계시는 科學技術人 여러  
분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科學技術人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과거와 같이 國際競爭力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선진대열에 진입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중남미 제국들처럼 先進國의 문턱에서 정체와  
좌절의 늪으로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와 있습니  
다. 그동안 우리나라 經濟發展過程을 發展史적인  
측면에서 보면 초기의 技術導入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여 수출로 연결시켜 발전하여 왔으  
며, 그 후에는 技術導入에 의존하여 중화학공업

을 추진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經濟가 이에서 한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 尖端産業을 이룩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야만 국제 비교우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課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技術의 革新》과 《科學의 暢達》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우리 科學技術人의 막중한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科學技術만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産業社會의 구조적인 한계성과 임금인상에 따르는 국제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技術保護主義로 인한 격심한 通商摩擦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끝없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未知의 世界》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大統領께서도 금년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10년안에 우리나라 科學技術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신 바와 같이 政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科學技術革新만이 先進民主福祉國家를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확고한 인식아래 科學技術振興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科學技術人들도 이와같은 政府의 科學技術 政策意志를 심분인식하고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科學韓國》을 이룩하는데 가일층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科學技術界가 이러한 國家的 課題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長期的인 안목에서 科學技術人力의 양성에 주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방이라는 안이한 방법으로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모방의 限界 뿐만 아니라 先進國들의 技術保護主義장벽을 넘어 우리 科學技術이 국제수준의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創造能力의 배양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創意的인 人力의 계속적인 영입과 既存人力의 革新指向的인 의지를 배양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優秀研究集團制度和 基礎科

學研究支援센터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科學技術 人力의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는 大學의 研究活性化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專門碩士制度和 技術士制度를 중심으로 現場技術人力의 創意力 배양에도 힘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科學技術分野에 대한 投資資源을 확대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이제 10년남짓 남아 있습니다. 급박한 문제들로 열병을 앓고 있는 현실속에서 10년 후의 韓國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자고 한다면 어이없다고 할지모르나 우리게는 미래가 있어야 하고 아무리 오늘이 바쁘다고 해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면에서 볼 때 제 1회 科學技術振興會議에서 대통령께서 확고히 천명한 2001년까지 GNP 5%를 科學技術部門에 투자하겠다는 뜻은 반드시 조직적이고도 단계적으로 國民合議하에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의 投資效率를 증진하기 위하여 體系的인 總括計劃에 따라 단편적인 사업보다는 大學과 研究所 그리고 産業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적 접근에 따라 운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科學技術分野에 있어서의 國際協力活動을 더욱 깊고 넓게 펼쳐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先進科學技術을 흡수하여 우리의 수준을 시급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끊임없이 높아만 가는 技術保護障壁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科學技術外交를 통한 國際協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國際社會에서의 韓國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主管으로 오는 6월말에 개최되는 제11차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에 미주, 구라과, 일본은 물론, 중국, 소련, 북한에 이르기까지 그 참가범위를 확대하여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科學技術者들이 참여하는 범세계적 韓民族科學技術者 綜合學術祭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로, 科學技術革新의 주역인 우리나라 科學技術人들이 國家의 未來를 향한 헌신적 노력의 과정에서 보다 긍지를 느끼며 안정된 자세로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科學技術人의 經濟, 社會的 지위격상은 國民的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政府는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각 출연연구소의 중장기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연구의自律性和 국가적 목표달성의 동시 충족을 위한 政策開發과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政府의 政策意志와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진지한 노력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科學先進化 目標達成이 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하시는 바와 같이 科學技術은 이제 단순히 經濟發展을 위한 수단의 차원을 넘어서 國民의 福祉向上은 물론 政治發展과 文化暢達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천년

대가 되면 科學技術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게 되어 科學者만이 아닌 모든 國民이 科學技術을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科學技術立國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科學技術에 대한 投資의 확대와 두뇌자원의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科學技術을 이해하고 생활화함으로써 국민속의 科學技術이 실현될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先進民主福祉國家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科學技術人들은 科學技術의 革新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모두의 가슴속에 科學하는 마음을 심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科學技術이 일반국민의 생활속에 폭넓게 배어들도록 솔선해서 科學文化的 暢達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오늘 뜻깊은 科學의 날을 기념하는 이자리에서 科學技術의 振興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해 있는 現實問題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 하나 실현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科學技術人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